

2021

뉴스클리핑

(2021. 8. 31.)

국립광주박물관

연번	제목	매체	일시
1	신덕1호 무덤 보고서, 日학자도 참여..."금동관-신발, 백제 장인 솜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668/1	동아일보	8.10.
2	30년 만에 임나일본부 망령서 벗어난 신덕 고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668/1	동아일보	8.10.
3	함평 신덕고분 발굴 30년만에 보고서..."주인은 여전히 미궁"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71600005?input=1195m	연합뉴스	8.10.
4	함평 신덕고분 "백제·왜(倭) 문화 혼재, 20~30대 남성 지배층 무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317&cID=10701&pID=10700	뉴시스	8.10.
5	1500年前 유리구슬 '영롱'... 금동관 꽃무늬도 선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0/108630808/1	동아일보	8.20.
6	신덕고분은 문화적 개방성의 증거...누구의 무덤이면 어떤가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8240500001	경향신문	8.24.
7	30년전 '쉬쉬'하며 감췄던 일본식 고분...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8240500001	경향신문	8.24.
8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공개회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11	BBS NEWS	8.26.
9	국립광주박물관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 공개회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98700005?input=1195m	연합뉴스	8.26.
10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0863&cID=10701&pID=10700	뉴시스	8.26.
11	국립광주博,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유물공개회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	금강신문	8.26.
12	특별전<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 공개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ngo/1009336.html	한겨레	8.27.
13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공개회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89	BBS NEWS	8.27.
14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30203702322417006	전남매일	8.29.
15	전문가의 눈을 통해 바라 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82916161527559	전남일보	8.29.
16	전문가들 '호남지역 장고분'의 비밀 푼다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30226399395102096	광남일보	8.29.
17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30233262554772006	광주매일신문	8.29.

1	신덕1호 무덤 보고서, 日학자도 참여...“금동관-신발, 백제 장인 솜씨”	동아일보	8.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668/1		

東亞日報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A02면 중판

신덕1호 무덤 보고서, 日학자도 참여... “금동관-신발, 백제 장인 솜씨”

(합평)

30년만에 조사결과 발표 ▶A1면서 계속
일본 고대 '전방후원분' 양식 무덤
입나일본부설 악용 우려로 비공개
“백제-왜와 밀접한 관계 지닌
20, 30대 지역 수장 가능성” 결론
태국산 구슬-일본산 금송 출토
6세기 문화교류 다양성 보여줘



국립광주박물관이 일본 연구자들까지 참여
시킨 신덕 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격 발간
하기로 한 건 오랜 조사 결과 이 무덤이 왜의 것
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6세기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의 독자
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고학 증거들이 다수 발
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입나일본부설의 한계
가 명확해졌다는 얘기다. 앞서 박물관은 이 무
덤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 조사했지
만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낙중
전북대 교수(고고학)는 “6세기 전엽 영산강 유
역의 현지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발
견돼 입나일본부설에 의해 왜곡 해석될 여지가
줄었다. 신덕 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일
본 학자들까지 참여시킨 건 국내 학계의 자신감
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덕 1호분에서는 무덤 주

인의 높은 신분을 보여주는 금동관, 금동신발,
연리문 구슬, 중층 유리구슬, 큰칼, 비늘갑옷,
투구, 말띠꾸미개 등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됐
다. 무덤에서 출토된 차아 6점의 크기와 마모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30대 중반의
남성이 묻힌 것으로 추정됐다.

무덤에서는 백제와 왜의 문화가 뒤섞인 양식
이 여럿 확인됐다. 백제, 왜, 가야의 문화를 폭넓
게 받아들인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의 문화수용
양식이 반영된 것. 다카타 긴타(高田眞太)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는 보고서에 포함된
‘합평 신덕 1호분 출토 관, 식리에 대하여’ 논고
에서 두 장의 촉판이 발잡치와 발등에서 결합된
금동신발 구조를 근거로 백제 공인이 부장된 금
동신발을 제작한 것으로 봤다. 금동관 역시 귀갑
(龜甲·거북 등딱지) 무늬를 새긴 양식이 금동신
발과 흡사해 동일한 기술전통을 가진 백제 공인
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전방후원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전남 함평 '신덕 1호분' 전경(왼쪽 사진). 위는 동글고 아래는 각이 진 열쇠고리 모양은 전형적인 전방후원분 형태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관(오른쪽 사진)은 다각형의 구획과 꽃무늬가 조합된 양식 등으로 미루 볼 때 백제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리구슬, 쇠비늘갑옷 등과 더불어 무덤 주인이 지역 수장 신분임을 보여준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분 구조나 끈 형태의 동근고리칼(銅頭大刀·환두
대도)은 왜계 문화의 속성으로 분류됐다. 관대 위
로 두 개의 산봉우리가 솟아난 모양의 광대산신식
(廣帶山神式) 금동관은 왜와 백제의 요소가 혼합
된 양식이다. 그는 “신덕 1호분은 영산강 유역 사
회의 주체적인 대외 교섭과 적극적인 외래 묘제
수용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며 “이곳에 묻힌 이
는 백제, 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집단의 수
장층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국내 고고학계도 6세기 전엽 백제 왕권이 영산
강 유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
제하기 위해 왜, 가야와 활발히 교류한 이 지역 수
장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낙중
교수는 ‘합평 신덕 1·2호분의 분구와 석실’ 논고에
서 “취사 선택적 묘제의 도입을 보면 무덤 축조 주
체는 현지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덤
주인) 영산강 유역권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백
제 중앙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역 지배에 중추

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덤에서는 6세기 전엽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화교류가 활발
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유물도 다수 나왔다.
목관(木棺) 조각의 수종이 무령왕릉과 같은 ‘일
분산 금송’으로 판별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여
기에 유리구슬 41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점(녹색 및 황색 유리)의 원료 산지가 태국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30년 만에 임나일본부 망령서 벗어난 신덕 고분	동아일보	8.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668/1		

[단독]30년 만에 임나일본부 망령서 벗어난 신덕 고분

김상윤 기자 | 입력 2021-08-10 03:00 | 수정 2021-08-10 03:01

“함평 신덕 1호분 왜인 아닌 지역수장 무덤 가능성 높아”
30년 미공개 발굴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전남 함평 '신덕 1호분' 전경(왼쪽 사진). 위는 동굴고 아래는 각이 진 열쇠고리 모양은 전설적인 전방후원분 형태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관(오른쪽 사진)은 다각형의 구획과 꽃무늬가 조밀한 양식 등으로 미려. 총 6개 백제 유물이 개략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리구슬, 쇠비늘갑옷 등도 미려한 무덤 주인이 지역 수장 신분임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임나일본부설에 이용될 우려로 인해 30년간 공개되지 않은 삼국시대 '신덕 1호분' 발굴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동아일보가 미리 입수한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분 출토 유물에서는 백제와 왜(왜)의 문화가 혼재된 양상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일 고고학자들은 20,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의 주인이 지역 수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반도에 진출한 왜인이 묻혔을 것으로 보는 임나일본부설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다.

1991년 3월 도굴 흔적이 발견돼 첫 조사가 이뤄진 신덕 1호분은 일본의 고대 무덤에서 흔히 발견되는 열쇠구멍 모양의 전형적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앞네모지고 뒤는 둥근 봉분을 가진 무덤'이다. 신덕 1호분은 이런 봉분 모양 탓에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무장 유물들에 백제와 왜 문화가 혼합돼 있어 이들과 교류한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이 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무덤 주인은 20, 30대 남성

● 금동관, 금동신발 백제 정인 숨씨



신덕 1호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연구자들에게서 참여한 신덕 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격 발간기로 한 건 6세기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고학 증거들이 최근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얘기다. 앞서 박물관은 이 무덤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낙중 전북대 교수(고고학)는 “6세기 전엽 영산강 유역의 현지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임나일본부설에 의해 왜곡 해석될 여지가 줄었다. 신덕 1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일본 학자들까지 참여시킨 건 국내 학계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무덤 안에서 나온 '쇠비늘갑옷'. 가죽 끈으로 엮기 위해 뚫은 구멍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신덕 1호분에서는 무덤 주인이 높은 신분을 보여주는 금동관, 금동신발, 연리문 구슬, 종종 유리구슬, 큰칼, 비늘갑옷, 투구, 말띠꾸미개 등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됐다. 무덤에서 출토된 치아 6점의 크기와 마모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30대 중반의 남성이 묻힌 것으로 추정됐다.



무덤에서는 백제와 왜의 문화가 뒤섞인 양식이 여럿 확인됐다. 백제, 왜, 가야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인 영산강 일대 지배세력의 문화수용 양상이 반영된 것. 다카타 간타(高田貴大)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는 보고서에 포함된 '함평 신덕 1호분 출토 관, 식리에 대하여' 논고에서 두 매의 측면이 발굴지와 발동에서 결합된 금동신발 구조를 근거로 백제 공인이 부장된 금동신발을 제작한 것으로 봤다. 금동관 역시 귀갑(龜甲거북 등딱지) 무늬를 새긴 양상이 금동신발과 흡사해 동일한 기술전통을 가진 백제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전방후원분 구조나 관 형태의 동근고리칼(環頭大刀·환두대도)은 왜계 문화의 속성으로 분류됐다. 관데 위로 두 개의 상봉우리가 솟아난 모양의 광대(山式) 금동관은 왜와 백제의 요소가 혼합된 양식이다. 그는 “신덕 1호분은 영산강 유역 사회의 주체적인 대의 교섭과 적극적인 외래 모체 수용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며 “이곳에 묻힌 이는 백제, 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집단의 수장층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3	함평 신덕고분 발굴 30년만에 보고서..."주인은 여전히 미궁"	연합뉴스	인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71600005?input=1195m		

함평 신덕고분 발굴 30년만에 보고서..."주인은 여전히 미궁"

출고시간 | 2021-08-10 11:14



국립광주박물관 발간...1호분에 왜 '백제·토착 세력 영향 존재' 한때 '임나일본부설' 근거 우려도..."학계 논의 활발해지길"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무령접시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본의 옛 무덤 양식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은 네모지고 뒤는 둥근 무덤)과 매우 유사한 전남 함평 신덕고분의 조사 보고서가 발굴 30년 만에 발간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신덕 1호분과 2호분 축조 양식과 출토품 정보를 담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보고서 이달 하순에 펴낸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신덕 1호분과 2호분 위치·자연환경·조사 경위를 설명하고 무덤 내부 구조와 유물을 풍부한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 학자 6명과 일본 연구자 3명이 쓴 논고도 게재했다.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구슬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세기 초반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덕 1호분은 국립광주박물관이 1991년 3월 실측조사를 하다가 도굴 구멍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해 여름에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박물관은 200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행했으나, 정식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다.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쇠갑옷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낙중 전북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신덕 1호분에 대해 "무덤 형태와 매장시설로 보면 왜·규슈 세력과 관계가 깊은 상황에서 축조됐지만, 관대나 관고리가 부착된 목관에서는 백제 영향도 확인된다"면서 무덤 주변 도랑 형태, 돌 우경을 덮은 무덤길의 함아리 등을 근거로 현지 토착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카타 간타(高田寛太)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는 신덕 1호분에서 나온 마구 세트, 구슬과 사신 안치 방식은 백제계 속성이지만, 관과 삼각형 절모는 왜와 백제 요소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덕 1호분에서 발견된 구슬이 피장자 위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려주는 유물로 백제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목관 재질은 무령왕릉과 같은 일본 특산 나무인 금송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호남 지역 전방후원분은 12곳에 14기가 산재한다고 알려졌으며, 축조 시기는 모두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으로 짐작된다.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토착 세력 출신이라는 설과 왜인이라는 설로 나뉜다. 왜인이라고 해도 백제가 파견했거나 왜에서 망명한 인물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게다가 각각의 무덤에 잠든 사람의 성격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어 피장자 신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금동관 조각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고고학계도 6세기 전엽 백제 왕권이 영산강 유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왜, 가야와 활발히 교류한 이 지역 수장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낙중 교수는 '함평 신덕 12호분의 분구와 석실' 논고에서 "취사 선택적 묘제의 도입을 보면 무덤 축조 주체는 현지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덤 주인은 영산강 유역권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백제 중양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역 지배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덤에서는 6세기 전엽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유물도 다수 나왔다. 목관(木棺) 조각의 수종이 무령왕릉과 같은 '일본산 금송'으로 판별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유리구슬 41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점(녹색 및 황색 유리)의 원료 산지가 태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1500年前 유리구슬 '영롱'... 금동관 꽃무늬도 선명	동아일보	8.2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0/108630808/1		

1500年前 유리구슬 '영롱'... 금동관 꽃무늬도 선명

광주박물관 신덕고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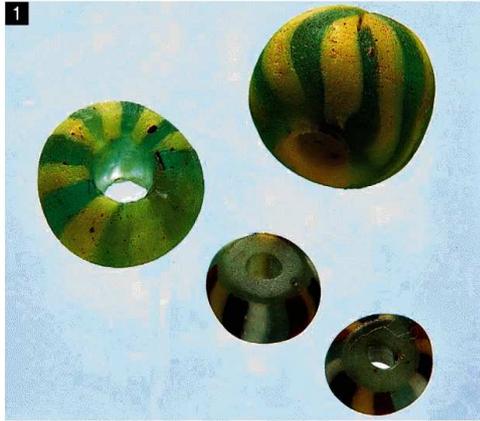
발굴 30년만에 유물 전체 첫 공개
백제-왜-가야-토착세력 문화 혼재
초록-노랑무늬 연리문 구슬 '정교'
경주 황남대총 출토품과 닮은꼴

마치 줄무늬 호박처럼 초록색과 노란색 무늬들이 번갈아 이어지며 영롱한 빛깔을 뽐낸다. 원색의 유리구슬만 봐선 1500년의 세월을 짐작하기 힘들다. 지름은 불과 1.2cm, 허리를 숙여 진열장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봐야 형태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초록색과 노란색 유리관을 손톱 크기보다 작게 이어 붙인 정교한 솜씨에 다시 한번 놀란다.

17일 둘러본 국립광주박물관의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에서 가장 눈길을 끈 유물은 전남 함평군 신덕 1호분에서 출토된 '연리문 구슬'이다. 이 유리구슬은 제작방법이 까다로워 신덕고분 외에 경주 황남대총과 노서리고분, 공주 무령왕릉과 수촌리고분, 나주 북암리고분에서만 출토됐을 정도로 희귀하다. 신덕 1호분에서는 총 4점의 연리문 구슬이 나왔는데 이 중 초록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섞인 것은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두 점의 유리 사이에 금박이나 은박을 덧댄 '중중 유리구슬'도 나란히 전시됐다. 두 유물 모두 무덤에 묻힌 이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10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이 1991~2000년 신덕 1호분 발굴 조사 후 출토 유물 전체(871점)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30년간 발굴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신덕 1호분의 봉분이 일본 고대 무덤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형적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앞은 네모지고 뒤는 둥근 봉분을 가진 무덤 형태를 갖고 있어서다. 박물관은 신덕고분 특별전을 최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말 발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전시는 백제와 왜(倭), 가야, 지방세력의 문화가 신덕고분에 혼재돼 있다는 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유리구슬 옆에 전시된 금동관은 조각으로 나와 전체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표측한 도구로



1 국립광주박물관의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에 전시된 신덕 1호분 출토 '연리문 구슬'. 색색의 유리관을 이어 붙여 줄무늬처럼 만드는 기술의 난도로 인해 희귀 유물로 꼽힌다. 2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무덤에서 출토된 쇠비늘 갑옷을 살펴보고 있다. 3 금동관은 백제와 왜의 양식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금속판을 눌러(타출·打出) 표현한 육각형과 꽃무늬를 볼 수 있다. 이는 무령왕릉이나 익산 입점리고분 등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백제 양식이다. 그런데 판테 위로 두 개의 산봉우리가 솟아난 이른바 광대 산식(廣帶山式)은 미즈라(고대 일본 남성들의 머리 모양) 장식품을 모티브로 한 왜의 문화다.

철기 진열장에 놓인 양증맞은 크기의 쇠도끼, 쇠낫, 쇠손칼은 가야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약 6cm 길이에 불과한 일종의 미니야채로, 실생활이 아닌 매장 의례용으로 제작됐다.

신덕고분 근처 만가촌 고분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철기가 나왔는데 학계에선 무덤 주인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부장품으로 본다.

전시는 말미에 신덕 2호분에서 출토된 널못(목관을 고정하는 쇠못) 5점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1호분에서 불과 12m 떨어진 2호분에 묻힌 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1호분 발굴 조사 결과를 검토한 고고학자들은 1호분에 묻힌 이는 백제, 왜, 가야와 활발히 교류한 이 지역 수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2호분은 1호분과 달리 극심한

도굴 피해를 입어 남은 유물이 널못밖에 없다. 그런데 1호분이 조성되고 채 100년도 안 돼 세워진 2호분의 양식은 당시 백제 중앙과 같은 육각형 석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백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2호분에 묻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하지만 파견 관리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무임지에 묻혔다는 건 웬지 부자연스럽다. 박경도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2호분의 주인이 백제 관리가 아닌 1호분에 묻힌 지역 수장의 아들이나 손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김성운 기자 sukim@donga.com

경향신문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014면 기획특집

신덕고분은 문화적 개방성의 증거...누구의 무덤이면 어떤가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함평 신덕고분 국적 논쟁

“아니이건...” 1991년 3월 26일 전남함평 신덕고분을 찾은 국립경주박물관 조사단이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고분의 원형부서에서 도굴 구덩이가 보인 것이다.

더욱이 이 도굴 구덩이는 불과 며칠 전에 판 개 분명했다. “뒀다 다시 매운 구멍에는 부러뜨린 소나무 가지가 채 마르기도 않은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갓 베어낸 소나무가 나뭇굴고 있었어요. 도굴 구덩이 주변에는 약간의 철기 부스러기와 도자(刀子-작은칼)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성낙준 당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회고)

그야말로 “파괴파괴” 도굴 흔적이었단다. 각도 높은 검출 수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관람객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동문에 포장상자를 밀고 들어와서 사러왔다. 그 포장상자를 뜯어보니 신덕고분에서 도굴한 ‘할기류’였다. 도굴범들은 2년 6개월 뒤(1993년 9월) 잡혀왔다.

그러나 도굴범이 상대가 좋은 도굴범 65점을 600만~2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였다. 당시 신문은 “신덕고분은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도굴범이 팔아넘긴 유물 중 5~6점은 국보급”이라고 소개했다.

■ “함평도에 일본식 고분이 있다”

검출 수사의 여파로 국립경주박물관 등은 4월부터 40여일간 본격 발굴을 펼쳤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술자료 축적을 위해 발굴조사보고서를 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은 고심 끝에 신덕고분의 발굴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고용 행정정보서만 만들었을 뿐이다. 왜 ‘비공개’ 결정을 내렸을까.

신덕고분이 처음으로 내부구조를 공식 조사한 ‘장고분(장방추원분)’이었기 때문이다. 장고분(長鼓塚)은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 한다. ‘앞은 네모나고(前方) 뒤는 둥근(後圓)’ 형태라서 이름 붙은 무덤(塚)이다. ‘장구’와 닮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장고분’이라 한다.

3세기 중엽~6세기 후반 일본에서 유행한 무덤이다. 일본 전역에 2000기 넘게 분포하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기의 일왕 무덤은 다 이 형태이다. 399년 사망한 닌토쿠(仁德) 일왕의 무덤이 가장 유명하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1970~1980년대에 “함평도에도 ‘신성한 일왕 기계의 무덤 형태가 함평도에 존재할 리 없다’며 구개를 내쳐왔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는 ‘함평도 장고분’을 일·일분부와 연결시켰다. 이들은 “특히 고성 등 기아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장고분은 일·일분부의 결정적 증거”라 주장했다. 이렇게 일·일분부 논쟁을 일으킨 송학동 고분은 1999년 ‘장고분 아남’으로 최종 명명됐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속속 알려진 장고분은 국내 학계로서는 다루기 힘든 ‘거기엔 감자’였다. 자칫 일·일분부의 소유물이 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발굴보고서를 낼 수 없었던 이유
그러나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장고분으로 알려진 신덕고분은 처음에도 정식 발굴된



1991년 장고분 가운데 처음으로 내부구조를 밝힌 전남 함평 신덕고분. 전형적인 일본식 장고분(장고분 혹은 장방추원분)으로 알려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발굴조사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무령왕릉 발굴케 하는 규모의 무덤

1991년 40여일간 발굴 작업했지만 발굴조사보고서 내지 않기로 결정 일본식 장고분 형식으로 드러나 자칫 일·일분부 증거 될까 우려

무덤 주인공 두고 논쟁 펼쳐졌지만 일·일분부와 연결 지을 증거 없어

백제식 장신구와 중국계 자기 등 한·중·일의 요소 다 들어간 무덤 민족 감정을 편향한 해석 안 돼

것이다.

과연 일본의 고분 형식이라는 장고분이 맞았다. 무덤 내부에서도 일본식이 보였다. 천정과 네 벽, 문 안쪽에 모두 주철(朱漆)이 되어 있었다. 빨강계 칠했다는 얘기다. 출토된 대형 칼의 경우 손잡이 구멍이 일본 후나야마(후마모토현·熊本縣) 고분의 유물과 유사한 형태이다.

무덤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쓰인 금동제관의 흔적이 보였다. 금동관과 금동신발의 파편들도 여러 점 출토됐다. 국내에서 처음 내부 구조가 밝혀진 일본식 장고분인 것도 모자라 대단한 위상까지 갖췄다. 나...

아니 그런 무덤이 왜 영산강 유역에 존재했다는 것인가.

이런 판국이었던 발굴조사를 맡은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쉬쉬하며 발굴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신하게 표현하면 무덤 형태가 구덩이로 보였기 때문이다. 파지고 보면 국내에는 장고분 연구자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선무덤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없지 않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무덤’을 ‘장고분’이라 부르는 학계가 어용만 당할 수 있었다.

단적인 예가 있다. 1994년 5월 20일 일 본 아사히신문 1면 주요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한국 광주의 명화동 고분에서 전방후원분과 흡사한 고분이 발굴되었다. ... 봉분 주위에 일본 전방후원분의 특징인 하나와(輪輪-원통형 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출사 됐다. 6세기 당시 ...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 또한 한반도에 유입된다는 걸 입증한다.”

기사가 나온 다음날(21일) 명화동 고분



일본의 대표적인 장고분(전방후원분)인 닌도쿠(仁德) 왕릉. 서기 3세기 중엽~6세기 후반에 걸쳐 일본에서 유행한 무덤 형식이다. 일본 전역에 2000기 넘게 분포하고 있다.

을 발굴한 국립경주박물관이 큰 곤욕을 치른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전화를 걸어 “그러면 우리가 저쪽(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면서 “뭔가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이 일·일분부를 주장할 거리가 생겼고, 그걸 기점으로 일본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뤘으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 무덤 주인공은 누구?

이후 신덕 및 명화동뿐 아니라 전남 영암 자라봉, 함평 장고산, 영평 월산리, 광주 월계동 등에서도 장고분이 계속 보고됐다. 장고분은 결국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본식 무덤’이었던 것이다. 7세기 5세기 말~6세기 초까지 딱 50여년간...

장고분의 자료가 축적되면서 무덤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5세기 말 6세기 초 마한 출신의 토착세력 수장인(일분부)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왜의 토착(장고분)을 썼다는 주장도 있었다. 5세기 말 이리던 475년(개로왕 21년) 고구려의 침공에 백제 한성시 함락되면서 백제의 국세가 약화된 시기와 맞물린다.

무덤 주인공이 아예 일본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예컨대 영산강 유역에 왜의 무덤 형태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출사하는 상사 주재원이 고강의 무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또는 영



신덕고분은 비록 도굴됐지만 금동관과 금동신발 조각들이 여러 점 확인됐다. 무덤의 주인공 위상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동관은 일본분이 역력하지만 백제의 제작기법도 드러 보인다. 금동신발은 백제산일 가능성이 짙다.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신덕고분에서 확인되는 구슬류. 이런 유리구슬류는 백제산이거나 일본에서 왜 백제 관련 유역에서 출토된다. 신덕고분 구슬류는 백제를 통해 유입됐을 것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필자는 보고서에 실릴 한·일 연구자들의 논문은 미리 받아 두고 20년 남짓 만에 장고분 공부를 다시 해봤다. 무덤 주인공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무덤 주인 공-일본인”이라는 견해를 펼쳐도, 이것을 일·일분부와 연결지는 연구자는 없다. 일본학계가 주장하는 일·일분부는 4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남부에 경영한 식민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장고분은 50여년간 반복 유행했다. 그것도 겨우 14기 정도만 확인된다. 이 정도로 왜가 장기간 지배한 흔적이랄 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일본)이 주장하는 일·일분부의 주무대 일·일분부에서는 장고분이 보이지 않는다. 또 백제의 조정에 백제 귀족으로 만일 왜인이 무덤이면 어디나 일·일분부라는 관계가 없다.

■ 한·중·일 요소 다 섞인 고분
1991년 기껏 조사해놓고도 패치 못한 ‘신덕고분 발굴보고서’가 꼭 30년만인 최근에야 나왔다.

이에 발맞춰 10월 2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함평 에데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일·일’은 제목으로 특별전도 열리고 있다. 필자는 2000년대 중반에 장고분을 다룬 바 있다.

당시 몇몇 연구자가 북상분으로 둘러싸고 있던 함평고분을 탐사해 그걸 토대로 일·일분부를 주장해왔다. 그런 일 때문에 ‘신덕고분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소식이 매우 반가웠다.

출토 유물은 어떤가. 다카다 간타(高田 寛太)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는 신덕고분의 유구와 출토 유물을 왜계와 백제계, 왜+백제계, 재지계(마한 출신 토착세력) 등으로 도시화했다. 즉 왜계는 장구형 무덤 형태와 구슬계 물품, 그리고 끈 모양의 둥근고리칼(한·일) 등이다.

백제계는 장식 목관과 맞닿은 세트, 구슬류와 신발 등의 장신구, 그리고 목관의 인자 방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왜+백제’는 금동관과 은제장식, 삼각형 절도(일종의 장) 등이다. 이 밖에 무

덤질 제사에 사용된 토기류는 마한 출신 두족세력의 요소가 부인된다. 그러나 다카다의 견해 중 금동관의 경우 전형적인 일본식이라는 견해(이한성 대안대 교수)도 있었다. 게다가 도굴범이 팔아넘긴 유물 중에는 중국계제의 초두(조리기구·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의 요소가 다 들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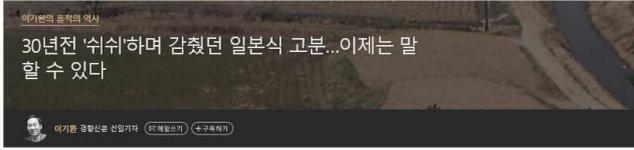
■ 손소러운 국적 논쟁

비단 신덕고분만이 아니다. 이런 복잡한 속성(아발로 ‘장고분’뿐 아니라 나주 북원리 3호분과 정촌동 등 토착세력의 고분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다카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을 특정 정치체제의 정치·경제적 의도(가)로 간주해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해악적일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국인이라는 거냐, 일본인이라는 거냐 분명하게 언급하고 채곤한다면 할말은 없다. 이별 수도 있고, 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5세기 말~6세기 전반 영산강 일원은 일본을 방한한 백제인이 거대한 일본의 장고분을 보고 돌아와 그와 비슷한 무덤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우대 정책’을 편 백제의 조정에 출사해서 백제 관료 혹은 귀족이 된 왜인이 무덤일 수도 있다. 그러면 경우든 지금이 순간의 민족 감정도 1400년 전을 재현하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일인가.

선명기자 ksh@kyunghyang.com

7	30년전 '쉬쉬'하며 감춰던 일본식 고분...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향신문	8.2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8240500001		



입력 : 2021.08.24 05:00 수정 : 2021.08.24 10:02



1991년 장고분 기슭에 처음으로 내부구조를 밝힌 전남 영광 신덕고분. 전형적인 일본식 고분(장고분 혹은 전방후원분)으로 일리가 적게는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발굴조사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아니 이걸...” 1991년 3월 26일 전남 함평 신덕고분을 찾은 국립광주박물관 조사팀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고분의 원형부 서쪽에 드러난 도굴구멍이 보인 것이다.

더욱이 이 도굴구멍에는 불과 며칠 전에 판 흔적이 분명했다.

“뚫다가 다시 메운 구멍에는 부러뜨린 소나무 가지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갓 베어진 소나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도굴 구멍이 주변에는 약간의 철기 부스럭기와 도자(刀子, 작은 칼)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성낙준 당시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의 회고)

■생생한 도굴 흔적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도굴 흔적이었다. 당시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도높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관람객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등문에 포장상자를 잠시 맡겨놓고는 사라졌다. 맡긴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하도 이상해서 그 포장상자를 뜯어보니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철기류’였다. 도굴범들은 2년 6개월 뒤인 1993년 9월 검거됐다.

그러나 이미 도굴품 중 상태가 좋은 65점은 600만~2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였다. 당시 신문은 ‘신덕고분은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을 방불케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도굴범이 팔아 치운 유물 중 5~6점은 국보급’이라고 소개했다.



함평 신덕고분의 도굴흔적. 국립광주박물관이 실측조사하기 불과 며칠만 흔적이었다(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처음 조사된 일본식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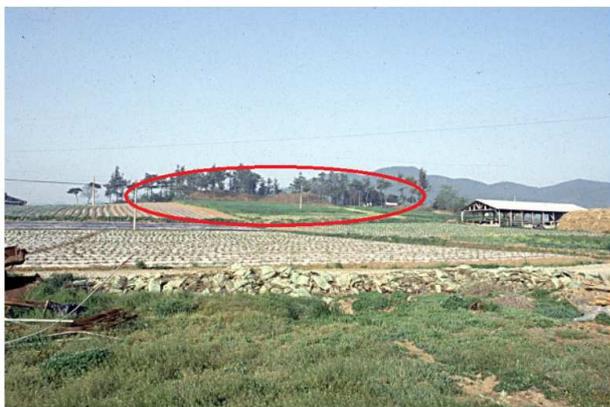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국립광주박물관 등은 4월부터 40여일간 본격 발굴을 펼쳤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발굴이 마무리되면 학술자로 축적을 위해 발굴조사보고서를 펴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국립광주박물관은 고심 끝에 신덕고분의 발굴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보고용 행정보고서만 만들었을 뿐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덕고분이 처음으로 공식 조사된 이른바 장고분(전방후원분)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 한다. 앞은 네모나고(前方) 뒤는 둥근(後圓) 형태라 해서 이름붙은 무덤(墳)이다. 한국에서는 ‘장고’와 닮았다고 해서 ‘장고분(長鼓墳)’이라 한다.



함평 신덕고분의 원경. 신덕고분은 1980년대부터 흔적이 알려졌고, 도굴이 됐지만 1991년 장고분으로서 처음으로 내부구조가 밝혀졌다(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서기 3세기 중엽~6세기 후반에 걸쳐 일본에서 유행한 무덤형식이다. 일본 전역에 2000기 넘게 분포하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기의 일왕 무덤은 모두 이 형태이다. 가장 유명한 장고분은 399년 사망한 다토쿠(仁德) 일왕의 무덤이다.



신석고분은 비록 도굴했지만 금동관과 금동신발 조각들이 여러 점 확인됐다. 무덤의 주인을 높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동관은 일본인이 역력하지만 백제의 제작기법도 드러 보인다. 금동신발은 백제산물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신석고분에서 확인된 토기류. 무덤 협시 56조가 무덤입구에 깔려있었다. 굽다리 접시와 짙은흑광아리 등도 보였다. 영산강 유역에서 제작된 토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신석고분에서 출토된 고리자루 큰칼과 화살통장식, 나무 널, 손잡이가 끈 형태의 고리자루큰칼과 관재로 쓰인 나무(양송)는 일본계로 보인다. 화살통 장식의 제작지는 일본일 수도, 백제일 수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신석고분에서 확인된 구슬류. 이런 구슬구슬류는 백제산이거나 일본에서도 백제관문 유역에서 출토된다. 신석고분 구슬류는 백제군을 통해 유입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신석고분에서 출토된 발굽이, 육진기 후반을 대표하는 백제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터부시된 장고분 논쟁

신석고분이 처음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학자 일부가 전남 나주 덕산리와 신촌리 등의 고분 중에 장고분(전방후원분)과 유사한 고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고대 일본의 전형적인 무덤인 장고분이 한반도에 존재한다? 국내학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 1972년 윤세영 고려대 박물관 주임과 황용훈 경희대 교수 등이 “충남 부여에 장고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고고학계는 별집을 쭉서 놓은 듯 들끓었다.

간급 문화재위원회가 소집되어 윤세영·황용훈 두 사람의 발표를 청취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허황된 이야기니만큼 발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83년 6월 강인구 영남대 교수가 한발 더 나갔다.

“경남 고성 등과, 전남 나주·영암·무안·함평 등 여러 곳에서 장고분이 보인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내학계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강교수의 주장은 오히려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강교수가 거론한 고분 중 가야 지역에 존재한 고성 송학동 1호분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물론 강교수는 “전방후원분(장고분)은 일본의 고유요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가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학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학계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주로 원로학자들은 일왕 가계의 것으로 신성시되는 무덤형태가 한반도에 존재할 리가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나 ‘한반도 장고분’을 만나일본부와 연결짓는 이들이 생겼다. 일부 소장파는 장고분이 특히 고성 등 가야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강교수의 주장에 흥분했다. 이거야말로 만나일본부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후 전남 해남의 장고산 고분과 용두마을의 말무덤고분 등 장고형 고분의 존재가 계속 알려졌다.

반전의 과정도 있었다. 1970년대 ‘장고분’ 논쟁의 출발점이 된 충남 부여의 ‘추정 고분’은 자연 구름으로 밝혀졌다. 1980년대 일본에서 만나일본부 논쟁을 촉발시킨 경남 고성 송학동 1호분도 1999년 ‘장고분’이 아닌 ‘쌍분’으로 최종 판명됐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영산강 유역에서 속속 알려진 장고분은 학계로서는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다. 자칫 만나일본부의 소송돌이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색 고분의 충격

그런 상황에서 또하나의 장고분으로 알려진 신석고분이 처음으로 정식 발굴된 것이다.

과연 일본의 고분형식이라는 장고분이 맞았다. 무덤 내부에서도 일본색이 보였다. 천정과 4벽, 문 안쪽에 모두 주칠(朱漆)이 되어 있었다. 빨강계 칠했다는 얘기가. 출토된 대형 칼의 경우 손잡이 구멍이 일본 후나야마(구마모토현·熊本縣) 고분의 유물과 유사한 형태이다. 무덤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쓰인 금송제 관의 흔적이 보였다. 금동관과 금동신발의 파편도 여러점 출토됐다.

국내에서 처음 내부구조가 밝혀진 일본식 장고분인 것도 모자라 대단한 위상까지 갖췄다... 아니 그런 무덤이 왜 영산강 유역에 존재했다는 것인가.

이런 판국이었으니 발굴조사를 맡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쉬쉬하며 발굴조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뭐 시쳇말로 두려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국내에는 장고분, 즉 전방후원분 연구자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멀쩡 보고서 냈다가 일본 학계에 이용만 당할 수 있지 않은가.

단적인 예가 있다. 1994년 5월 20일 일본 아사히 신문 1면 주요기사가 눈에 띄었다.

“한국 광주의 명화동 고분에서 전방후원분과 흡사한 고분이 발굴되었다. ... 봉분 주위에 일본 전방후원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니와(埴輪·원통형 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출되어 세워졌다.”

기사는 “6세기 당시 고대 일본은 백제와 가야로부터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 또한 한반도에 유입했다는 걸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무슨 말인가. 장고분인 명화동 고분의 주위에 50cm 간격으로 원통형 토기가 세워져 있다는 것에 주목한 기사다. 원통형 토기(하니와)는 고분 주위에 세운 토기로 일본식으로 알려진 무덤 조성방식이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보도 된 다음날(21일) 명화동 고분을 발굴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큰 곤욕을 치렀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전화를 걸어 “그러면 우리가 저쪽(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가”면서 “뭔가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주문한 것이다. 당시는 일본의 근·현대사 왜곡 때문에 죽을 노릇이었던 때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만나일본부설을 주장할 거리가 생겼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뤘으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신석고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돌기와 검주 등 발원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속속 확인되는 장고분의 존재

이후 신석 및 명화동 고분 분이 아니라 전남 영암 자라봉, 함평 장고산, 영광 월산리, 광주 월계동 등 영산강 유역에서 장고형 고분이 속속 발견됐다. 장고형 고분은 결국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일본식 묘제'였던 것이다. 그것도 5세기말~6세기 초까지 딱 50여년간...

장고분 발굴이 이어져 자료가 축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 무덤의 기원은 한반도나, 아니면 일본이나, 또한 무덤을 쌓은 사람은 일본인(왜인)이나, 백제인(혹은 마한 출신의 토착세력)이나 하는 것이었다. 일본학계는 '네모 지고 주위에 구멍이 시설을 갖춘 방형주구묘(方形周溝墓)의 돌출부가 '전방후원분'으로 발전했다'면서 일본 자생설을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이 주구묘가 기나이(畿内)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한국과 가까운 규슈(九州)에서는 고훈(古墳) 시대(3세기 중반~7세기) 초기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기원 전후에 조성된 주구묘(주위에 구멍이 시설을 두른 묘)가 한반도 전라도 지방에서도 잇달아 발굴되고 있다. 만약 주구묘가 장고분의 전신이라면 외려 한반도 기원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지금까지 14기만 확인됐지만 일본 전역에는 2,000기가 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반쪽(5세기말~6세기초)했지만 일본에서 300년 넘게 대유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덤 주인공은 한국인, 일본인?

무덤의 주인공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5세기말 6세기초 마한 출신의 토착세력 수장이 왜(일본 규슈 지방)와 교류를 강화하면서 왜의 묘제(장고분)를 썼다는 주장도 있다. 5세기 말이라면 475년(개로왕 21년) 고구려의 침공에 백제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의 국세가 약화되었던 시기와 맞물린다. 혹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전도한 백제의 남하에 어필하는 의미에서 마한 출신 토착세력이 왜의 묘제를 썼다는 견해도 있다.

무덤 주인공이 아예 일본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영산강 유역에 왜의 무덤센터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종사하는 유력한 왜의 상사 주재원이 고향의 무덤인 '전방후원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또는 영산강 유역에 살고 있다가 백제 귀족으로 편입된 왜계 백제 관료라는 설도 있다.

다른 설도 있다. 일본 열도로 이주해간 한반도계 사람들 중 가야인들이 왜와 아마토 정권을 세우자 격변기에 북규슈에 살고있던 마한 출신 이주민이 망명객의 신분이 되어 분향(전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무덤 주인공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임나일본부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백제이든 마한 출신이든)이라면 원천적으로 임나일본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일본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임나일본부는 4세기말~6세기초까지 2세기 가량 한반도 남부에 경영했다는 식민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장고분은 50년여간 반쪽 유행했다. 그것도 겨우 14기 정도만 확인된다.

이 정도로도 왜가 장기간 지배한 흔적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의 주무대인 영남 지방에서 장고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 백제가 외국인 채용 방침에 따라 조정에 출사시킨 왜인의 무덤이라 해도 임나일본부와는 관계가 없다.

■촌스러워진 국적논쟁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다. 1991년 기껏 조사해놓고도 '쉬쉬'하며 보고용 행정보고서로만 족해야 했던 신석고분 발굴보고서가 30년만에 발간됐다. 이에 발맞춰 10월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함평 예덕리 신석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라는 제목으로 특별전까지 열리고 있다.

필자는 2000년대 중반에 장고분을 다룬바 있다.

당시 몇몇 연구자가 복사본으로 갖고있던 행정보고서를 입수해서 그걸 토대로 학계의 입장을 취제한 바 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신석고분 발굴 조사 보고서'의 발간 소식이 매우 반가웠다.

필자는 보고서에 실릴 한일 연구자들의 논문을 미리 받아보고 20년 남짓만에 장고분 공부를 다시 해봤다. 그런데 기원 및 국적논쟁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만은 그렇다. 무형항를처럼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명문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적 논쟁은 영영 평행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아닌가 아니라 장고분 주인공의 국적을 따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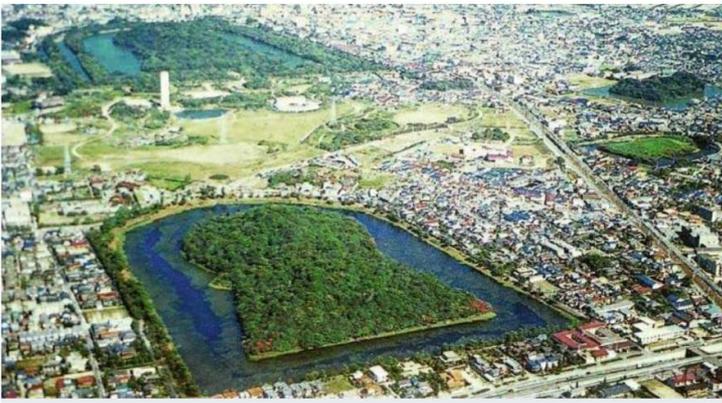
요즘 학계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도 같다. 한국인이니, 일본인이니 하고 국적을 딱 잘라 주장하는 것을 약간 촌스럽게 느끼는 듯하다.



문표은 1972년 7월18일 동아일보에 실린 전방후원분 관련 기사. 무덤에서 전방후원형 구덩이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오른쪽은 1988년 7월11일 경향신문 기사. 광진구 영남대 교수가 경남 고성 함평동 고분 등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에서 전방후원분이 분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영암동 고분에서 확인된 원통형 표기묘. 1984년 5월 20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광주의 명화동 전방후원분에서 복원 무덤이 일본 전방후원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와 (명화동 원통형 표기)의 유사한 표기가 발견되어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일본의 대표적인 장고분(전방후원분)인 닌오쿠(仁尾)유물. 서기 3세기 중엽~4세기 후반에 걸쳐 일본에서 유행한 무덤형식이다. 일본 전역에 2000기 넘게 분포하고 있다.

보고서 논고 가운데 김낙중 전북대 교수의 글(신석고분의 분구와 석실)은 “신석고분은 일단 왜의 규슈(九州) 세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서술했다. 고분 형태나 매장시설로 보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덤 주위를 두른 도랑(주구)과 돌뚜껑을 덮은 무덤길 향아리, 띠모양으로 얇게 깎 돌(층석), 원통형 토기(하니와)를 두르지 않은 점 등은 또 전형적인 일본식이 아니다. 관대나 관고리가 부착된 목관 등은 백제 중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어떤가. 다카타 간타(高田寛太)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는 신석고분의 유구와 출토 유물을 왜계와 백제계, 왜+백제계, 재지계(마한 출신 토착세력) 등으로 도식화했다.

다카타에 따르면 왜계는 장고형 분구와 규슈계 들방, 그리고 곧 모양의 둥근고리큰칼(환두대도) 등이다. 백제계는 장식 목관과 말갯춤새 세트, 구슬류와 신발 등의 장신구, 그리고 목관의 안치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왜+백제’는 금동관과 은제장식, 삼각형 철모(긴 나무 자루 끝에 날을 물려 찌르거나 던지는 무기) 등이다. 이밖에 무덤길 제사에 사용된 토기류는 마한 출신 토착세력의 요소가 보인다.

그러나 다카타의 견해 중 금동관의 경우는 전형적인 일본식이라는 견해(이한상 대전대 교수)도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도굴범이 팔아넘긴 유물 중에는 중국제 자기와 조두(조리기구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신석고분 유물들

비단 신석고분만이 아니다. 고분을 구성하는 이런 복잡한 속성이야말로 영산강유역 ‘장고분’뿐 아니라 나주 북암리 3호분과 정촌고분 등 토착세력의 고분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석고분 출토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분석한 다카타 교수는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전방후원분)이 특정 정치체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마무리했다.

당시 영산강 유역 사회의 다각적인 대외교섭과 적극적인 외래 모체 수용의 움직임이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만에 퍼내는 보고서 내용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국인이라는 거냐, 일본인이라는 거냐 분명하게 언급하라고 채근한다면 할 말은 없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5세기 말~6세기 전반 영산강 일원은 상상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을 수도 있다. 일본을 방문한 백제인이 거대한 일본의 장고분(전방후원분)을 보고 돌아와 그와 비슷한 무덤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우대정책’을 편 백제의 조정에 출사해서 백제 관료 혹은 귀족이 된 왜인의 무덤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지금 이 순간의 민족 감정으로 1400년 전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일인가.

또하나, 검거된 신석고분의 도굴범들은 도굴품 중 최상품 65점을 팔아넘겼다고 진술했다.

수사과정에서 국보급 유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점 당 600만~2000만원을 받고 판 유물들은 30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굴품인줄 알고도 사들였다면 그것은 장물이 분명하다.

물론 몇단계를 거쳐 유통되었다면 지금 소장자는 도굴품인지도 모르고 샀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굴품은 이제 유통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안에 떨면서 그와같은 도굴품을 소장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신석고분 도굴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1991년 도굴범이 국립중앙박물관 정문에 갖다놓았던 전례를 따라주기를 바란다. 1400년전의 수수께끼 같은 영산강 유역의 역사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이 기사 작성을 위해 박경도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성낙준 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권오영 서울대이한상 대전대 김낙중 전북대 교수가 도움 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1980년대 임나일본부 논쟁을 촉발시킨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 장고분, 즉 전방후원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이 고분은 1999년 장고분이 아닌 쌍분으로 판명되었다.

8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공개회	BBS NEWS	8.26.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11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공개회

✎ 김종범 기자 | Ⓞ 입력 2021.08.26 10:46 | Ⓞ 수정 2021.08.26 10:52 | 🗨 댓글 0



▲ 국립광주박물관 전경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한 유물공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물공개 행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특별전시 기간 중인 8월 30일과 9월 27일, 10월 18일 3차례에 걸쳐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30일 행사에선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을 공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시는 다음달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전 해설 영상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SNS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9	국립광주박물관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 공개회	연합뉴스	8.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98700005?input=1195m		

국립광주박물관 '신덕고분' 특별전 유물 공개회



함평 신덕고분에서 나온 구슬

[국립광주박물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 공개 회를 오는 30일, 다음 달 27일, 10월 18일에 진행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가 대상이다. 이달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등도 참여한다.

전시는 전방후원형 고분, 장고분이라고 불리는 함평 신덕고분 유물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종료일은 10월 24일이다.

10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뉴스시스	8.2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0863&cID=10701&pID=10700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등록 2021-08-26 13:48:30



[서울=뉴스시스]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국립광주박물관)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현주 기자 =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회는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특별전시 기간 중인 8월30일, 9월27일, 10월18일 오후 2~5시에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학계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을 공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뉴스시스]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국립광주박물관) photo@newsis.com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완전히 공개하는 이번 행사가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 대한 특별전시는 10월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 해설 영상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1	국립광주博,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유물공개회	금강신문	8.26.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		

국립광주博,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유물공개회

대학·연구기관 연구자 대상

정현선 기자 송민 2021.08.26 14:41 댓글 0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 공개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8월 30일, 9월 27일, 10월 18일 오후 2시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유물공개회는 학계 관련 연구자들이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조사하며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30일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국내 전문가가 함께한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 측은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 대한 특별전은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 해설 영상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정현선 기자 honsonang@daum.net

12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 공개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ngo/1009336.html	한겨레	8.27.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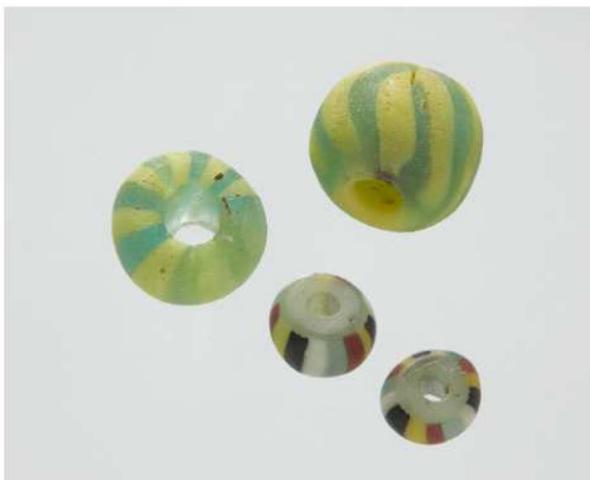
◇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30일, 새달 27일, 10월 18일에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 공개회를 한다. 학계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 전방후원형 고분, 장고분이라고 불리는 함평 신덕고분 유물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특별전은 10월 24일까지 하며, 해설 영상 '규레이터와의 대화'를 유튜브 채널(youtube.com/channel/UCyZbaQ52Gh8SB6GDdYx-Bw)에서 볼 수 있다.

14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전남매일	8.29.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30203702322417006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유물공개회

2021년 08월 29일(일) 11:21



연리문 구슬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해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30일과 9월 27일, 10월 18일 세 차례 오후 2~5시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을 공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특별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 해설 영상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15	전문가의 눈을 통해 바라 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전남일보	8.29.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82916161527559		

전문가의 눈을 통해 바라 본 호남 장고분의 비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유물공개회 개최

By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게재 2021-08-29 16:19:22



국립광주박물관이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 공개회는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특별전시 기간 중인 30일·9월 27일·10월 18일 오후 2~5시에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8월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 이한상 대전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을 공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완전히 공개하는 이번 행사가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 대한 특별전시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전 해설 영상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볼 수 있다.

16	전문가들 '호남지역 장고분'의 비밀 푼다	광남일보	8.29.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30226399395102096		

전문가들 '호남지역 장고분'의 비밀 푼다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유물공개회

입력 : 2021. 08.29(일) 17:39

박세라 기자 sera0631@gwangnam.co.kr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와 연계한 유물 공개회를 연다.

공개회는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특별전시 기간 중인 9월 27일, 10월18일 오후 2~5시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8월 행사에는 이정호 교수(동신대), 이한상 교수(대전대)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한다.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완전히 공개하는 이번 행사가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광주매일신문	8.29.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30233262554772006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연계 유물공개회

2021. 08.29(일) 19:34 박희중 기자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연계 유물공개회를 개최한다.

공개회는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특별전시 기간중인 30일, 9월 27일, 10월18일 오후 2-5시에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8월 행사에는 이정호 동신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을 공개하고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함평 신덕고분은 장고분이라 부르는 무덤의 유물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완전히 공개하는 이번 행사가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중 기자

박희중 기자